디플레 우려된다고?… 식탁물가는 천정부지

0%대 물가 불구 광주·전남지역 되레 급등 서민 시름

배추·돼지고기 등 식품가격 껑충 … 주류·라면도 꿈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째 0%대 행진을 거듭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식탁물가는 연일 뛰고 있어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경제불황을 이유로 보류됐던 주류와 라면 등의 가격 인상설까지 나돌면서 하반기 식탁물가 공포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82로 전년 동월 대비 0.5%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는 0.1%포인트 상승했다. 담뱃값 인상분(0.58%포인트)를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물가다. 광주 역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연속 1%포인트를 밑돌고 있다. 전남은 9개월째 1% 미만이고 최근 들어 넉 달동안은 아예 물가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교통비와 전기·가스요금이 하락한 것 이외에는 일상 생활에서 서민이 저물가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식탁 물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신선채소와 기타신선식품이 각각 16.5%, 17.5% 올랐다. 농축수산물 중에서도 배추(85.9%), 파(65.6%), 감자(25.7%), 마늘(17.2%), 고춧가루(9.8%), 돼지고기(7.6%) 등 밥상에 자주 오르는 품목의 상승률이 컸다.

이 때문에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와 실질물가는 딴판"이라는 비난과 함께 "뛰는 식탁물가와 월세 등 주거비 탓에 허리가 휠 지경"이라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주부 박모(41)씨는 "요즘 마트를 가서 장을 보다보면 제품을 몇 개 구입하지 않았는데도 가격이 많이 나와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에서는 전체 물가가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체감 물가와의 괴리감은 여전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류와 라면 등 식탁물가가 또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가 등에서는 라면과 소주, 맥주 제품에 대한 관세율 상승, 원가 부담 등으로 조만간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간 올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가격 인상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주요 원재료 가격에 근거해 소주와 맥주, 라면 순으로 가격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13년 하이트진로, 무학, 대선주조, 롯데주류까지 소주가격을 인상했다. 맥주는 2012년 하반기에 가격을 5%가량 인상했다.

라면의 경우 가격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소맥의 가격 상승세가 다른 어떠한 곡물보다 가파르며, 원화약세 또한 지속되고 있어서다. 라면은 2011년 이후 제품 가격 인상이 한 차례도 없었던 식품군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저물가 정책에 앞서 서민이 체감하는 물가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지만 소득이 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부담을 크게 느껴 물가가 많이 오른것처럼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2065.19 (-2.91) ▼금리 (국고채 3년) 1.73% (-0.01)

▲코스닥 716.43 (+9.16) ▲환율 (USD) 1123.30원 (+12.20)

광복 70주년 기념주화 예약 하세요

19일까지 접수

한국은행은 광복 70주년 기념주화 발행을 앞두고 오는 19일까지 대국민 예약 접수를 한다.

한국은행은 예약 접수에 앞서 지난 5일 본관 연수실에서 기념주화 실물 공개 행사를 열어 기념주화<사진>의 모습을 공개했다.

도안은 우리나라 한옥의 전통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모습을 새겨 넣어 미래를 향한 시작과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3종의 주화를 나란히 배치하면 하나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구도를 채택했다.

발행 예정일은 8월3일이며 액면 5만원·3만원짜리 은화 2종과 1만원짜리 황동화 1종 등 세 종류로 5만 개씩, 총 15만 개가 발행된다.

주화를 구입하려면 접수 기간내에 농협은행과 우리은행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사용금지 1년으로 연장

불법 대부광고에 동원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불법 대부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 등이 제보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중 1만4926건에 대해 이용중지 요청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다시 적발돼 사용중지된 번호가 511건(3.4%)이었고, 여기엔 3차례 중지된 번호도 9건 포함됐다.

김상록 금감원 팀장은 "이용중지 기간(90일)이 지난 뒤 지인 명의로 동일 번호로 재가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사례는 적발 건수(511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이용중지 기간을 대폭 늘리는 보완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SUHD TV '82S9W' 출시 삼성전자가 세계적 산업 디자이너 이브 베하(Yves Beha)와 협업한 2015년 SUHD TV 최상위 프리미엄 제품 '82S9W'를 세계 최초로 국내에 출시한다. 이 TV는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5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이다. 〈삼성전자 제공〉

광주·전남 금융자산 10억 이상 6600명

2015 한국 부자 보고서

광주·전남지역에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는 6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5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개인 자산가는 광주 3600명, 전남 3000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8만2000명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지역의 금융 부자는 전년도 5200명에 비해 27% 늘어 전국 평균 8.7%보다 증가폭이 컸다. 광주의 경우 구별로 보면 북구와 서구가 각각 1000명으로 많았고 남구가 700명으로 뒤를 이었다. 광산구와 동구는 모두 합해 800명으로 적었다.

전국 18만여명의 부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1인당 평균 22억3000만원, 총액은 406조원으로 가계 총 금융자산의 14.3%를 점유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8만2000명(45.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기 3만6000명(19.8%), 부산 1만3000명(7.1%) 순이었다.

부자들의 자산은 부동산(52.4%), 금융(43.1%), 예술품이나 회원권 등 기타(4.5%)로 구성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중기 제조원가 6% 오를때 납품단가 1% 하락"

중기중앙회, 납품단가 실태조사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체감 제조원가가 최근 2년간 6% 이상 올랐지만 납품단가는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놓은 '중소 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13~22일 국내 중소 제조업체 300곳을 조사한 결과, 2013년 제조원가를 100으로 봤을 때 올해 제조원가는 106.2로 6.2% 상승했다.

노무비(107.4)·경비(106.5)·재료비(103.6) 등이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원가 인상 요인으로는 '노무비 인상'을 꼽은 기업이 46.6%로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납품단가는 지난해 99.2, 올해 98.6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중소 제조업체의 61.7%는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평균적으로 17.2%는 올라야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의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다른 업체와의 가격 경쟁으로 인한 납품가격 인하(49.7%)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조사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중 48.7%는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거래가 끊길까봐 우려(26.0%)하거나 인상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24.7%)했기 때문이라고 업체들은 답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농협 농업경제 대표이사 이상욱 현 대표 재선출

농협중앙회는 8일 대의원회를 열어 농업경제 대표이사로 이상욱(57) 현 대표이사를 재선출했다. 임기는 오는 10일부터 2년간이다.

이 대표는 고흥 출신으로 1979년 농협대학교를 졸업했고 서강대에서 경제학 석사, 중앙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9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뒤 서울 양곡공판장장과 교육연수부장, 농촌자원개발부장, 홍보실장 등을 거쳤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